

中·美 갈등 한반도 문제에도 악영향

극단적인 결과 피하려면 양국 지도자는 실용주의와 널리 내다보는 자세 필요

Bates Gill

중·미 군용기 공중충돌 사건의 해결 협상을 맡은 외교관들은 실용주의와 인내심이 결국 우세했다는 사실을 고맙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양국은 매우 난처한 상황에서도 실용주의와 인내심으로 더 큰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양국의 지도자들이 상호 과열된 수사(修辭)를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 물론 이번 사건의 상황은 특이했다. 그러나 그런 실용주의는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 중·미 관계에 변수가 될 여러 주요한 이슈가 향후 몇달 사이에 논의될 예정이고 그 이슈들은 중국과 동북아 전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지스 방공 시스템을 갖춘 알리 버크급 구축함은 올해에는 대만에 판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에 다른 많은 첨단무기와 군사적 원조를 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이 대만을 의식해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면 미국은 대만의 방위를 위해 더 많은 무기를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안 문제가 무력증강으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불행히도 미국과 중국 및 대만이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주된 방법은 무력 증강밖에 없다.

또 4월 하순 미국의 對대만 무기 판매가 결정된 직후 리덩후이(李登輝) 前 대만 총통은 자신의 모교인 미국 코넬대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그가 1995년 5월 총통으로서 코넬대를 방문했을 때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과 미사일 실험으로 그에 항의했다. 게다가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는 천수이벤(陳水扁) 現 대만 총통이 중미를 방문하러 가면서 항공기 재급유를 위해 미국에 잠시 머무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과거의 그런 ‘통과 방문’은 중국의 분노를 샀다.

게다가 부시 행정부는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연장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미국 의회는 결국 중국에 PNTR 연장을 결의하겠지만 표결 과정에서 중국의 열악한 인권상황과 핵확산, 그리고 반미 감정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것이 확실하다. 또한 미국 의회는 베이징(北京)의 2008년 올림픽 유치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국제올림픽위원회는 7월 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베이징이 올림픽을 유치하지 못하게 된다면 중국의 반미론자들은 그 책임을 미국 탓으로 돌릴 것이다.

군용기 공중충돌 사건이 어느 정도 해결되긴 했지만 중·미 관계는 이미 상당히 손상됐고 앞으로 몇달 동안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본·대만·한국 정부가 중국과 미국의 자제를 촉구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최근의 사태 발전은 그들이 처신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본의 정국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상당한 의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계속 안개 속에 머물러 있다. 아무튼 일본에서는 反중국 감정이 증폭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은 한국·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관측통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화해 도모를 희망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중·미 관계가 악화되면 양안 사이에도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리덩후이와 천수이벤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해도 중국은 陳 총통에 대한 견제를 계속할 것이며 미국의 對대만 무기 판매를 꼬투리삼아 대만에 대한 정치적·군사적 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다.

한국의 김대중(金大中) 정부는 국내의 정치적·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미지근한 태도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화해 역할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현재의 중·미 관계와 부시 행정부의 對한반도 정책을 감안하면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과 미국의 협력은 더욱 뒷걸음질칠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편으로는 일본과 중국,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같은 극단적인 결과가 빚어지는 것을 피하려면 부시 미국 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군용기 공중충돌 위기 해결에서 보여준 것 같은 실용주의와 장기적인 사고방식을 더 많이 발휘할 필요가 있다. 부시 대통령이 말했듯이 중국과 미국은 서로 건설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한국·일본·대만·중국 등 동북아 파트너들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도자는 결집력 있고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브루킹스 연구소 동북아 정책센터 소장)